

# 원자력 분야의 현안이슈

2016. 10. 28.

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 
정 범 진

# 들어감

---

- 국내외 운영실적 좋다.
- Negative public perception
- NGO 대응실패
- 관산협력 약화
- 정부의 정치영향
- 탈핵발호
- 인력문제
- 무력화
- 정치 활용



# 국내외 운영실적

- 국내 운영실적
    - 이용율, 가동율 > 85 %
  - 국외 운영실적
    - UAE 적기건설
    - UAE 운영계약
- 국내외 운영실적 좋다.
- 지진, 태풍
    - 잘 하고 있다.

# NGOs

---

- NGO 발호
  - 후쿠시마 원전이 살렸다.
- NGO 뒤흔다꺼리 GO
  - 사후대응은 한이 없다
- NGO 중용 – 대표격?
  - NGO는 특정집단의 대표 (Not 국민대표)
- 탈핵의 제도권 진입
  - 지속발전(위) 등...
  - 입막음
- 포폴리즘 정책
  - 무지한 다수 무대책



# 대응실패

---

- NGO 뒤흔다꺼거리
  - 선제대응 부재 (☞ 공부 부족)
- 해결 vs 해소
  - 해소위주의 대응
- 한수원 뒤에 숨기
  -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
- 이유
  - 종사자의 무관심
  - 전문가의 무지
  - Press training 부족
  - 전문가의 사회인식 취약



# GO

- 에너지 수급
  - 민관합동기구에 의한 에너지기본계획
  - 하위계획을 더 어렵게
- 신재생에너지 환상
  - 가격, 예비발전, 주파수
  - ? : 고용창출, 청정,
- 산하기관과 정부의 WIN WIN 깨짐
  - 머리와 몸의 분리
  - 성공적 탈포획?
- 안전규제의 훼손
  - 탈핵 원안위원, 진흥으로 부터의 분리
- 사회적 비용 - 국민의 몫



# 인력문제

- 원자력 전공자 감소
  - 얼마까지 줄일 것인가?
  - 세계적으로 유일한 퍼주기 인력양성
- 마피아 족다
  - 전문성 vs 공정성
  - 100명의 잡범
- 고령화와 매너리즘 (연구계)
  - 지금은 성과가 좋을 수 있다.
- Y세대 문제
  - 단기근무
- 주인의식을 대치할 시스템 부재



# 무력화

- 지방이전
- 거버넌스 변화
  - 고리1호기폐로
- 사기저하
  - 억울하다
- 정책기능의 약화
  - 정부의 탈포획 정책
  - 연구하는 대학
- 원자력계의 반목
  - 마찰의 실종
- 주인의식 없는 청지기
  - NRF KAIF KONICOF KONEPA 등





# 기타

- 언론 재미 붙다.
  - 지금 이 시간 원전의 안전성은? 때려도 된다. (깨진 창문)
  - 피해자와 가해자 (납품비리, 싸이버 테러)
- 행정적 활용
  - 전력위기는 “망”의 문제
  - Governance의 Panic (정지, 9600억원, 인력부족)
  - 비용평가위원회 (미응찰, 값싼 전력원만 부담, 당근없는 채찍, 원안위의 재검증, 주민동의요구, 수출 악영향)
- 정치적 활용
  -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원자력의 필요성?
  - 천인공노와 본때
- CO2 감축?
  - 석탄의 견제 (주파수제어)

